

건희·보민 남매 데뷔전 “기대 이상”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선수권대회 첫 출전 우승·3위 입상

스쿼시 남매 구건희(대정중 1)와 보민(보성초 5)이 전국무대 데뷔전에서 화끈한 신고식으로 존재감을 알렸다.

이들 남매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경북 김천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동생 보민은 우승을, 오빠 건희는 3위에 입상했다.

코로나19로 초등부로 데뷔하지 못해 곧바로 중등부인 16세 이하부로 나선 구건희는 자신의 전국대회 첫 경기상대인 김성주(천안월봉중)와 대결에서 첫 세트를 11-8로 따내며 경기감각을 익혔다. 하지만 2세트 들어 잦은 실수로 8-11로 내줬다. 곧바로 그동안 배운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나머지 세트를 모두 잡아내며 3-1 승리를 거뒀다. 이어 벌어진 8강전에서도 류이안



구보민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을 3-0(12-10, 11-9, 11-8)으로 셋아웃시키며 첫 출전에 4강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준결승전 상대는 이동화(어모중). 이동화는 지난해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강자. 경기경험 부족과 구력의 차이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결과는 0-3(3-11, 6-11, 6-11) 완패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세 이하 여자부에 출전한 보민은 황보영(전주비전스포츠클럽)과 김주빈(대구 달성초)을 연파하며



구건희

첫 출전에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보민은 이번 대회에서 상대들을 압도하는 파워와 기량을 선보이며, 앞으로 예정된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출신 강현범(경남체육회)은 남자 일반부에서 3위에 입상했다. 강현범은 류한동(충북체육회)을 시작으로 조영훈(광주광역시체육회)과 류덕재(울산광역시체육회)를 잇따라 제압하며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국내최강 이민우(충북체육회)의 벽에 막히며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조상윤기자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동 “가자!” 지난 24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에서 열린 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회장 변태보)의 2023년 제주 마갈루(8,463m) 원정대 발대식에서 원정대원과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 등이 성공적인 등반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주서초-제주Utd 양강구도 전망

2023 초등축구... 서귀포리그는 중문초 3연승 고등리그 지난해 중위권 대기·서귀포고 약진

올 시즌도 제주 초등축구리그는 제주서초와 제주유나이티드의 양강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시즌 리그 A권역 최다승리 팀인 제주서초와 제주유나이티드는 지난 25일 이호구장에서 열린 2023 초등축구 제주시 리그 첫 번째 맞대결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제주동초는 화북초를 3-1로 격파하며 2패 뒤 첫 승을 신고했으며, 외도초는 서귀포리더스FC를 4-0으로 완파하며 2승 1무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2일 효돈구장에서 열린 서귀포시리그에선 중문초가 서귀포초를 5-0으로 제압하며 3연승 가도를 달렸으며, 서귀포리더스FC레드와 대정초가 서귀포FC와 대정화랑FC를 물리치며 1승씩 챙겼다.

중등리그는 제주제일중과 오현중이 초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공천포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제주제일중은 서귀포중을 7-0으로 대파했으며, 오현중도 서귀포FC를 9-2로 꺾었다. 양팀 모두 3연승을 달렸다.

K리그 주니어A에서 실력을 겨루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U15(제주중)은 초반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첫 경기에서 FC서울에 1-3으로 패한 뒤 인천유나이티드에게도 0-2로 패하며 2연패를 기록했다. 이후 이랜드에게 2-0으로 승리하며 첫 승을 거뒀지만 다시 안산 그리너스에 0-1로 석패해 1승 3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고등리그는 지난 시즌 중위권이던 대기고와 서귀포고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기고는 지난 24일 공천포구장에서 열린 리그(전반기) 두 번째 경기 서귀포원인FC와의 대결에서 3-1로 승리했으며, 서귀포고는 중앙고를 2-0으로 제압했다. 대기고와 서귀포고는 나란히 2승을 기록했다.

오현고와 제주제일고의 라이벌 대결에선 오현고가 1-0으로 승리하며 1승을 거뒀지만 제일고는 2연패 수렁에 빠졌다. 디펜딩 챔피언 서귀포축구센터는 서귀포FC를 5-0으로 따돌리며 2연승과 함께 정상수성을 향해 순항하기 시작했다.

오현고와 제주제일고의 라이벌 대결에선 오현고가 1-0으로 승리하며 1승을 거뒀지만 제일고는 2연패 수렁에 빠졌다. 디펜딩 챔피언 서귀포축구센터는 서귀포FC를 5-0으로 따돌리며 2연승과 함께 정상수성을 향해 순항하기 시작했다.

오현고와 제주제일고의 라이벌 대결에선 오현고가 1-0으로 승리하며 1승을 거뒀지만 제일고는 2연패 수렁에 빠졌다. 디펜딩 챔피언 서귀포축구센터는 서귀포FC를 5-0으로 따돌리며 2연승과 함께 정상수성을 향해 순항하기 시작했다.

남녕고 문민우·하영우 3위 2023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

문민우와 하영우(이상 남녕고)이 2023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다.

문민우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영천시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 2학년부 라이트미들급 8강전에서 박범수(전주 영생고)를 제압해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유승준(무주고)에게 접전끝에 패하며 3위를 차지했다.

웰터급의 하영우는 16강전에서 지은배(풍생고)에게 2:1로 이기고, 8강전에서도 김우준(상고)을 제압하며 준결승전에 올랐다.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장민하(군산동고)에게 1:2로 패하여 3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준호·문다희 동메달 수확 제51회 춘계 초중고유도연맹전

김준호(월랑초 6)와 문다희(하귀초 6)가 제51회 춘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파견 선발대회에서 선전을 펼쳤다.

김준호는 지난 25일 경북 문경시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초부 +66kg급에서, 문다희는 여초부 +57kg급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주고 야구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있다

2023 신세계이마트배 1회전서 충암고에 0-3 석패 투수진 탄탄·공격력도 선전 속 공수 조화 돋보여

제주고 야구가 올 시즌도 활약을 예고했다. 시즌 개막전에서 전통의 강호와 접전 끝에 석패했지만 투수진은 호투를, 공격에서도 나름 선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제주고는 지난 24일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올 시즌 첫 전국대회로 열린 2023 신세계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에서 2회 1점, 8회 2점을 허용하며 올해 정상권 수성을 예약한 충암고에 0-3으로 패했다.

박재현 감독이 이끄는 제주고는 선발로 사이드업인 안경준을 내세웠다. 안경준은 2회에 선취점을 내

줬지만 4이닝 동안 안타는 3개만 내주고 탈삼진은 4개나 기록하며 호투했다. 이어 나온 주장 이준서도 3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선방했다. 명건우와 최준민이 각각 1이닝을 소화했다. 후반에 나온 불펜전에서 추가 실점을 내줬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마운드 운용이 이뤄졌다.

조규제 투수코치와 동계훈련 기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주문한 것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타격에선 충암고 투수들의 구위에 고전했다. 충암고 선발 박찬호와 이어 나온 에이스 박건우는 3%

이닝 동안 탈삼진 8개를 기록하는 등 초고교급 투수로 정평이 나왔다. 하지만 신입생 감지력이 팀의 첫 안타를, 황욱과 양우석도 안타를 기록하며 무기력하지 않은 공격력을 선보였다.

아울러 외야수 고우성의 홈송구를 비롯 포수 최창희의 도루저지, 유격수 강지현의 깔끔한 수비 등 공수 조화를 이뤄 다음 경기에서 좀 더 나은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를 나름 성공적으로 마친 제주고는 오는 4월 9일 부산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리는 고교야구 주말리그 부산-제주권 부산정보고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 순위싸움에 돌입하게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출발확정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6월황금연휴** **클락전세기**

제주 ↔ 필리핀(클락&마닐라) 3박5일

클락 클럽	159만원 (54H/4조이상 단독)	클락&마닐라 관광	125만원 (미취학아동 : 95만)	클락 항공편	78만원 (한정판매)
--------------	-------------------------------	----------------------	-------------------------------	---------------	-----------------------

06. 03(토) ~ 06.07(수) 출국 22:00-00:30 귀국 02:00-06:3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임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등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탑(\$30), 클럽식, 캐디팁(18홀/\$2) **전세기의 경우 양국가(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제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